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김 소야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994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

지붕으로 덮힌 심장모양으로 다른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온정, 양육, 안전, 일체감, 인내심, 수용을 찾을 수 있는 가정에서의 생명과 사랑을 상징한다.

또한 개방된 이 디자인의 붓의 움직임은 불확실성을 가진 연속성을 의미하며 가정이라는 복합개념의 추상적 표현이며 사회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에 작은 민주주의를 심어가자는 뜻이다.

United Nations
Vienna, 1991

차 례

1. 가정의 중요성

2. 세계가정의 해 설정 취지와 목적

3. UN의 권고사업

4. 우리나라 기념사업 방향과 추진계획

1. 가정의 중요성

한 개인은 스스로의 선택없이 한 가족에서 출생하여 그 가족에서 성장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한 개인의 하루 생활에서 가족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의 장단과는 별도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없다면 사회자체도 존재 할 수 없다. 가족은 사회를 존재케하며 또한 존속케 하는 필수 불가결의 기본단위 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필요한 사회집단이다.

우리모두는 가족안에서 성장하며 가족에 한해서 많은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것을 알기때문에 더 모르는것이 있는것 같다. 모든 가족은 똑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 가족이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의 원천이 되는 놀라운 곳이다. 즉 철학이 넘치면서도 맥빠지고, 충만하면서도 힘에 부치며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이다(김인수, 1992).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부아시아에서는 이른바 가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다. 가족주의에서는 인간이 한 인간이기에 앞서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었고 가족의 원리가 가족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가족주의의 사회에서는 국가마저 가족의 질서에 의해 이룩되었다(이광규, 1975).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을 가장 소중하며 중요한 사회체계로 생각되어 왔으며 여전히 바람직한 가족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나라는 분명 살기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풍요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산구조에서 초래된 규격화, 획일화로 인한 인간의 부품화, 거대한 제도에의 예속화를 우려하면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속에 있다. 정보화사회는 개별화, 다양화, 개성화라는 특징을 가짐으로서 인간의 고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의 급속한 전개는 극심한 사회관의 혼재와 가족제도의 변화, 남녀 역할의 변화 등으로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영역 특히 대인관계와 아동양육 및 교육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동유기, 아동구타와 방임, 아동 성폭행(홍강의, 1989),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것(한국여성 개발원, 1992)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문제(김 소야자, 1992)등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단적인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성취 지향적 개인주의, 평등주의 및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근대적 구조원리에 반해 가정생활을 포함한 사적영역은 이러한 가치와는 상당히 무관한 전통적인, 혈연주의, 서열주의와 정의주의가 지배함으로써 과도기적 갈등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

현재 가족 관계상의 변화의 관건은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상의 변화로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립, 시가중심원리와 친정중심원리, 부모중심원리와 부부중심원리의 대립등으로 나타나는 제도적 관계와 애정적 관계간에 빚어지는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조혜정, 1998).

현대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는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제간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기능이 사회화됨에 따라 가정내에서 수행했던 제기능이 사회의 타집단에 위임되므로 가

정은 가족원의 상호작용과 인성발달의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편협된 가족 이기주의적 성향속에서 성장하여 인간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어린이들을 가정의 사회화 기능을 통하여 바른 가치, 규범 인간관계를 갖게됨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유지되고 안정되며 가족의 고유기능이 활성화되며 평등사회로의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적극적인 가정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교육의 목표와 가치관에 관한 폭 넓은 부모되기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가정이 존재해야 하며, 진정한 가정이 없는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인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인적 인간으로서 성숙 될 수 있게 되며 건전한 가정없이 건전한 사회도 존재할 수 있다.

2. 세계 가정의 해 설정의 취지와 목적

1989년 제 44차 유엔 총회에서 정부 및 정책결정자와 일반 국민의 가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44년을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 IYF)"로 선언하고 오스트리아 빈 UN사무국에 "세계가정의 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여 이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세계 가정의 해를 설정한 목적을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심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한 가정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감독을 위한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보강을 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기 위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간 협력을 증진하며 가정관련 주요현안(교육, 보건, 인구등) 및 여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세계가족의 해 사무국에서는 1993년에 아·태지역, 아프리카지역, 유럽지역 및 아메리카 지역으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지역별 정부기구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었고 11월에는 아프리카 말타에서 세계각국의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세계 가족의 해"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1993년 5월 24일에서 28일 중국 북경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ESCAP)와 세계가족의 해 사무국의 주관하에 25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기구 및 정부관련기관, 유엔기구 및 유엔관련기구, 비정부 기구의 대표자 등 각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가족상황, 활동을 보고한 뒤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회의에서 아·태지역 각국에서 국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세계 가족의 해"를 위한 행사를 주관하고 가족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조정하고 증진시키고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하였다(변화순, 1993 아·태지역 정부기구 준비모임 보고서), 즉, 국가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1) 가족관련단체를 포함하여 지방과 중앙의 활동조정, 정보교환촉진
2) IYF사업을 발기하고 선전
3) 장단기,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관련 국가프로그램 및 가족정책고안
4) 가족과 가족정책의 현황파악
5) 가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6) 국가발전 전략안에 가족프로그램 포함등의 의제를 중요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이어서 1993년 11월 아프리카 말타에서 UN IYH 사무국과 가족에 관한 비엔나 비정부 기구 위원회가 주최하여 80여개국 900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자원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려 교육 및 문화, 과학 및 기술발전,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루고 가족 관련 정책, 프로그램 및 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제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족에 관한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가족관련 각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3. UN의 권고사업

UN은 모든 국가가 국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문의 참여하에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가정의 기금조정에 협조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며 94년 부터 내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과 교육의 균등기회와 소득 보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수립, 가족계획 정책수립과 농촌 빈곤가정에 대한 자원시책 및 편부모가정등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고 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교육 가족생활, 상속에서 여성의 평등 보장과 아동학대나 유기로 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비행방지에 대한 노력과 장애인 보호기능 보강, 재활기회부여 및 가정에서의 노인부양 기능강화를 권고하고 있다(보사부 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 계획, 1994).

권고사업으로는

- 가족관련 정책(주택, 보건, 가족계획, 아동, 여성 등)의 개발 및 개선
-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남녀의 가사책임 분담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가족구성원의 권리(특히 여성,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도록 학교교과 과정 개정
-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세계가정의 해 홍보
- 세계가정의 해 홍보자료(팜프렛, 포스터, 우표) 발간배포
- 가족에 관한 세미나 및 웍크샵 개최
- 국가적 행사를 위한 자원동원
- 정부 및 비 정부기구의 참여 활성화 등이다.

4. 한국의 기념사업 방향과 추진계획

보사부에서는 세계가정의 해 선포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기념사업의 전개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긍정적 역할을 제고하고 국가발전 수준에 걸맞는 가정관련 사회보장시책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과 가족문제관련 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전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1993년 11월 30일 보건사회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및 각 분야 대표등 27명으로 구성된 IYF 기념사업지원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가정의 날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는 각종 기념행사를 시.도.분야별로 실시하도록 수립했다.

그외에 연구사업실시와 종합적 가정지원시책 개발과 가족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기념사업으로는 위원회 구성과 가정의 날 기념식, 기념우표 발행, 가족걷기 대회, 관련단체를 통한 가정을 주제로 한 백일장, 작품전시회, 모유먹이기 사업, 체육대회, 합창경연대회, 연극공연, 모자독서실 운영, AIDS 및 마약퇴치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개발로는 가정관련제도의 정비·보강으로 가족 관련연구부서 확충,(한국 보건사회 연구원내에 가족문제,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를 위한 4개 연구실 확충)과 노인건강 관계법 제정 및 교육기회 확대, 교육비 지원, 주택지원 확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재개발과 연구사업, 초.중고 교과서의 보완, 문제 가정발생 예방 및 치료, 가족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와 연구사업 실시이다.

홍보를 위해서 세계가정의 해 노래보급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아동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비디오 제작, 보급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정부차원에서 세계가정의 해 기념 사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여간 기쁘게 생각지 않는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일회성, 경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각 관련단체별로 비슷한 행사들로 난무하는 세계가정의 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각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체계적으로 공동협력으로 사회의 심장인 가족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간호인으로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누

구보다도 실감하며 또한 가정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고 노력하고 있는 전문인으로 자처하고 싶다. 현재 가족이 간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에 가족을 포함한 간호의 대상과 간호활동과 간호전달체계를 포함한 한국적 가족간호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Guide For a National Action Propramme on the International year of Family(1994), United Nations.
2. Family Matters(1992); Occasional Papers Series, No.1 United Nations.
3. Family Forms and Functions(1992); Occasional Papers Series, No.2 United Nations.
4. 변화순(1993), 세계 가족의 해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 여성개발원
5. 보건사회부(1994), 세계 가정의 해 기념 사업계획서
6. 김정자(1993), 2000년대의 가정, 월간여성, 10월호
7.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연구, 여성 개발원
8. 김인수(1992), 가족치료(해결중심접근법), 중앙적성 출판사
9. 홍강의(1989), 아동학대-한국의 현황과 치료개입,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0. 이광규(1975),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자
11. 유영주(1980), 가족관계학, 교문사
12.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3. 김 소야자외(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문화체육부
14. 김 소야자(1993), 가정붕괴, 대한간호협회 위기간호 보수교육 교재